

# 한-중 의약품무역협력 실무위 구성

## 정기적으로 서울, 북경에서 위원회 개최

한국 중국간 의약품 무역 협력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가동된다.

의수협은 지난달 15일 중국 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양 단체간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 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실무위 구성은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최준호 회장이 한국 중국간 의약품 분야 무역협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상해 원료의약품국제 전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 풍홍장 회장에게

의약품무역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으며 중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이번 구성된 실무위원은 양국이 각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매년 최소한 1회이상 북경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측 실무위원으로는 정승환 수석부회장을 비롯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임원상사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원회는 중국의 의약

품등록 절차 등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업계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측에서도 대한국 한약재 수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는 것이 의수협측의 설명이다.

한편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풍홍장회장은 오는 9월 중국의약품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 우리 업계의 의견과 연구소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산간지역 약용수목 수난

## “몸에 좋다” 마구잡이 벌채

강원도 평창, 인제, 철원 등 산간지방의 약용 수목들이 전문 채취꾼들의 마구잡이 벌채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내 각 시 군에 따르면 엄나무, 가시오갈피 나무, 느릅나무, 헛개나무 등 희귀 약용수목들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문 채취꾼들이 몰려 나무를 마구 자르고 뿌리채 뽑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평창군의 경우 인적이 닿지않는 깊은 산속마다 엄나무의 어린 순(두릅)을 따기 위해 나무 밑둥을 무참히 잘라버리거나 엄나무가 관절염과 위장병, 성인병 등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급증, 불법 채취돼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해발 1천261m인 봉평면 태기산 정상에는 군부대 기지가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30~40년 생 엄나무 수십그루가 무참히 잘려나갔다.

또 정선군의 가리왕산, 고양산 등지에서도 수십년생 엄나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철원군의 명성산과 금학산 등지에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몰려와 톱과 낫을 이용, 숙취해소에 효과가 크다고 소문이 난 헛개나무를 마구 베어 반출하고 있다.

이밖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갯골 등지에서도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돼 채취하거

나 보관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가시오갈피나무도 뿌리채 뽑히거나 가지가 잘려 약초상 등에 팔리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무공해 자연산 약초를 선호하면서 깊은 산의 약용수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풍기 태극삼

## 대만에 3,200kg 수출

경북 영주지역 풍기 태극삼의 대만 수출이 재개됐다. 풍기인삼농협(조합장 장석도)은 최근 대만 최대 수입상사인 생원무역유한공사에 태극삼 3,200kg, 35만 1,385달러어치를 대만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태극삼이 대만에 수출되기는 3년만의 일로 대만은 1999년 돼지 구제역과 지진발생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태극삼 수입을 중단했었다. 홍삼이 6년근 인삼을 주원료로 사용, 가격이 홍삼에 비해 크게 싸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버섯의 상품화가 가능케 됐다.

진주상황버섯(mushguy.co.kr)과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진주상황버섯은 지난 6월말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식품화 부문(Nutrition Facts)에서 승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상황버섯은 그동안 국외

조식품, 음료, 스낵 등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상남도와 경남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정제형 건강보조식품을 상품화해 수출에 나서고 음료, 라면, 스낵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상황버섯의 효능을 의약품 원료로도 인정받기 위해 하반기

# 상황버섯 美 FDA 승인

## 건강보조식품 등 상품화 가능

는 물론 국내(식약청)에서도 독성검사와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 식품이나 약재로 가공이 불가능했고 단지 1차 농산물로만 유통되어 왔다.

최근 상황버섯 농가들이 독자적으로 독성검사를 준비하는 등 상품화에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FDA로부터 식품화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최용주 진주상황버섯 대표는 “FDA로부터 식품화가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

에는 유럽국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절차를 마치게 되면 일본 미국 등에 암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원료로도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황버섯은 ‘히태루클루칸’이라는 물질이 있어 암환자가 이를 복용하면 인체의 백혈구를 증식시켜 암세포를 억제하고 당뇨병과 관절염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홍삼 대용품으로 이용돼 왔는데 품질이 뛰어나 대만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기인삼농협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태극삼은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주로 판매돼 왔다”면서 “앞으로 대만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마 통관기한 연장

지난 7월19일 개최된 제48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CITES 허가 절차를 적기에 받지 못해 통관기한이 경과된 천마 2톤에 대해 7월말까지 통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제47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키로 한 천마 18톤 중 대한약사회에 할당된 2톤을 동양한약유통이 수입대행 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CITES허가 절차를 적기에 받지 못하여 통관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7월말까지 통관기간 연장을 요청해 온 것. 그러나 향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기간 연장은 불허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유중인 창출 및 백출 미인수분은 샘플과 현물의 품질차이로 제조협회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관능검사를 거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3개기관) 등의 품질검증 절차를 거쳐 인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조업협회 등 소비자단체 측이 제기한 지황, 시호 수입신청 건은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만큼 차기회의로 논의 보류됐다. <문정희>

### 북한단신

# 고려약 1000여종 생산

## 고려약기술센터 대외교류 활발

건강식품은 이제 더 이상 남한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북한사람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건강식품을 애호하고 있다.

최근 가시오가피 인삼 등 토종약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을 대량 만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욕망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로인 듯.

북한에선 조선고려약개발센터가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약제연구실,약리연구실,생물약품연구실,중간시험공장 등 시설을 갖춘 이 센터는 인삼 오가피 등을 이용, 1000여종의 고려약과 60여종의 건강식품을 생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고려약과 건강식품 생산과 보급의 중심 기지로 통하는 이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과 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평양 제약공장들, 상반기 한약 생산목표 달성

북한 평양시 고려약(한약)생산관리국 산하의 제약공장들이 올 상반기 한약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6.14)가 전했다.

이 신문은 평양시 고려약생산관리국 산하의 제약공장 생산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활동을 적극 전개, “상반년도 고려약 생산계획과 약초 생산계획을 각각 102.7%, 114%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평천구역 제약공장에서는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긴밀한 협조 아래 ‘비타셀 영양제’ ‘항혈전 영양알’을 비롯해 효능 높은 고려약을 많이 생산했으며, 보통강구역 제약공장에서는 열관리공들의 역할을 강화해 고려약 추출과 농축, 건조능력을 최대한 증대시켰다고 신문은 지적했다.